

WEBVTT

00:00:11.004 --> 00:00:14.293

이번에는 어휘론과
관련된 부분인데요.

00:00:14.393 --> 00:00:17.271

사실 어휘만 따지게 되면
너무 할 게 없죠?

00:00:17.371 --> 00:00:20.224

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
단어의 의미 관계에서

00:00:20.324 --> 00:00:24.109

좀 더 벗어날 수는 있지만 중의적인
문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

00:00:24.209 --> 00:00:26.111

종종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?

00:00:26.211 --> 00:00:28.596

우선 단어의 의미 관계부터
가볍게 보도록 할게요.

00:00:28.696 --> 00:00:32.190

단어의 의미 유형은
개념적 의미가 있고요.

00:00:32.290 --> 00:00:35.358

그다음에 연상적
의미라는 게 있어요.

00:00:35.458 --> 00:00:37.415

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.
이해하세요.

00:00:37.515 --> 00:00:42.685

여기서 개념적 의미 안에는 중심적
의미가 있고 주변적 의미가 있습니다.

00:00:42.785 --> 00:00:45.534

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
개념적 의미는

00:00:45.634 --> 00:00:48.911

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았을
때 나오는 의미예요.

00:00:49.011 --> 00:00:54.408

그리고 그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았을
때 처음 나오는 의미 있죠, 1번 의미.

00:00:54.508 --> 00:00:56.091

그게 바로 중심적 의미가 돼요.

00:00:56.191 --> 00:00:58.972

그리고 그 밑에 2번,
3번, 4번, 5번.

00:00:59.072 --> 00:01:02.269
이런 것들이 바로 주변적 의미가
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01:02.369 --> 00:01:06.392
사실 이 주변적 의미는 늘어나면
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.

00:01:06.492 --> 00:01:08.830
예를 들면 들다라는 단어가 있죠?

00:01:08.930 --> 00:01:13.344
이 들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
동음이의어가 생각이 날 거예요.

00:01:13.444 --> 00:01:18.157
일단 아래에서 위로 드는 것도 있고
햇빛이 집 안으로 들었다, 라고 할 때

00:01:18.257 --> 00:01:19.806
바깥에서 안으로의
의미가 있을 겁니다.

00:01:19.906 --> 00:01:23.645
그런데 그 바깥에서 안으로의
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들다가

00:01:23.745 --> 00:01:27.844
조금 의미가 확장되다 보니까
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냐면,

00:01:27.944 --> 00:01:29.861
적금을 들다, 이런
단어가 만들어져요.

00:01:29.961 --> 00:01:32.311
그때도 쓰일 수 있어서 이
들다를 예로 든 겁니다.

00:01:32.411 --> 00:01:33.925
그런데 이 들다라고 하는 어휘가

00:01:34.025 --> 00:01:36.837
중세시기부터 옛사람들이
써왔을 거 아니에요.

00:01:36.937 --> 00:01:39.883
그런데 그때도 내가
이번에는 계를 들었는데

00:01:39.983 --> 00:01:41.637
이런 식으로 쓴 건
아니란 말이에요.

00:01:41.737 --> 00:01:44.935
그러니까 적금과 같은
금융 상품이 생기고

00:01:45.035 --> 00:01:46.242
그 금융 상품이 생기면서

00:01:46.342 --> 00:01:50.158
거기에 가입하다, 라고 하는 한자어에
대응되는 고유어가 뭐가 있을까.

00:01:50.258 --> 00:01:54.269
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
누군가 들다, 라는 말을 썼는데

00:01:54.369 --> 00:01:57.025
그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겠죠?

00:01:57.125 --> 00:02:02.204
그래서 자주 쓰다 보니까 사전에서도
이게 금융 상품에 가입하다는 의미로

00:02:02.304 --> 00:02:03.514
하나를 추가해주는 거죠.

00:02:03.614 --> 00:02:06.937
그러면 그런 게 주변적 의미로
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02:07.037 --> 00:02:09.880
의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확장된
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.

00:02:09.980 --> 00:02:14.044
또 중세국어 공부하게 되면
어휘의 변화 이야기하면서

00:02:14.144 --> 00:02:17.427
의미의 확장이나 의미의
축소나 의미의 이동.

00:02:17.527 --> 00:02:20.123
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는데
의미의 확장 부분이

00:02:20.223 --> 00:02:24.912
바로 주변적 의미를 늘어나게 하는 하나의
역사성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

00:02:25.012 --> 00:02:27.058
이 연상적 의미를 좀 더
구체적으로 볼게요.

00:02:27.158 --> 00:02:30.724
연상적 의미는 사실 사전을 통해서

00:02:30.824 --> 00:02:35.221
알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
점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.

00:02:35.321 --> 00:02:36.887
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, 볼게요.

00:02:36.987 --> 00:02:40.064
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.

00:02:40.164 --> 00:02:45.093
애는 개념적 의미일까요,

연상적 의미일까요?

00:02:45.193 --> 00:02:46.130
개념적 의미.

00:02:46.230 --> 00:02:48.637
그리고 중심적 의미에 해당해요.

00:02:48.737 --> 00:02:53.306
왜냐하면, 사전 정보입니다.

00:02:53.406 --> 00:02:55.796
하늘이라는 명사를 찾아보면
첫 번째 의미로 뭐가 되어있느냐,

00:02:55.896 --> 00:03:00.383
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
무한대의 넓은 공간이 되어있어요.

00:03:00.483 --> 00:03:02.269
그 의미로 쓴 거잖아요.

00:03:02.369 --> 00:03:04.783
그 높은 공간에 구름
한 점이 없다.

00:03:04.883 --> 00:03:06.767
그런데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.

00:03:06.867 --> 00:03:09.495
너의 악행을 하늘이 보고만
있지는 않을 거다.

00:03:09.595 --> 00:03:14.572
이때의 하늘은 일기와 기상을
책임지는 하늘이 아닌 거 같아요.

00:03:14.672 --> 00:03:18.384
애는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.

00:03:18.484 --> 00:03:21.147
왜냐, 사전에 나와요.

00:03:21.247 --> 00:03:23.061
하느님을 달리 이르는 말.

00:03:23.161 --> 00:03:26.651
또는 종교에서 상상의 세계.

00:03:26.751 --> 00:03:27.571
하늘로 갔어.

00:03:27.671 --> 00:03:31.370
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
의미에서 예문을 보시면

00:03:31.470 --> 00:03:33.932
네 죄는 하늘이 알고 있다.
하늘도 참 무심하시지.

00:03:34.032 --> 00:03:35.471

하느님의 의미로 썼다는 거죠.

00:03:35.571 --> 00:03:39.445

그러면 너의 악행을 하늘이
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.

00:03:39.545 --> 00:03:43.766

절대신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,
라는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죠?

00:03:43.866 --> 00:03:47.233

따라서 애는 개념적 의미 중에
주변적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.

00:03:47.333 --> 00:03:50.301

당연히 여러분은 이 하늘과
이 하늘 중에

00:03:50.401 --> 00:03:55.418

뭐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
의미일까를 생각해본다면

00:03:55.518 --> 00:03:57.454

아마 앞에 걸 생각하셨을 거예요.

00:03:57.554 --> 00:03:58.807

눈에 보이는 거.

00:03:58.907 --> 00:04:01.651

실체적인 것들이 먼저 일차적인
의미를 갖게 됩니다.

00:04:01.751 --> 00:04:05.784

그래서 일차적 의미, 이차적인
의미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.

00:04:05.884 --> 00:04:11.255

그런데 그에 반면에 세 번째,
민영아, 넌 나의 하늘이야.

00:04:11.355 --> 00:04:14.013

민영이가 비를 내려주나?

00:04:14.113 --> 00:04:16.117

아니면 신이에요? 그건 아니잖아.

00:04:16.217 --> 00:04:18.657

그러면 여기서의 하늘은
어떤 의미로 썼을까요?

00:04:18.757 --> 00:04:19.694

중요한 존재?

00:04:19.794 --> 00:04:21.532

항상 바라볼 수 있는 존재?

00:04:21.632 --> 00:04:25.014

글쎄, 여기서의 뭔가 상징적
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.

00:04:25.114 --> 00:04:27.909

네, 그게 바로 이런 연상적
의미에 해당해요.

00:04:28.009 --> 00:04:30.362

그래서 사전에서는 찾을 순
없지만, 우리가 문장에서

00:04:30.462 --> 00:04:34.025

상징성이나 비유적인 의미로
뭔가 더 더해서 넣었다면

00:04:34.125 --> 00:04:36.082

그게 바로 연상적 의미가 됩니다.

00:04:36.182 --> 00:04:39.748

그래서 연상적 의미를 조금 더
구체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

00:04:39.848 --> 00:04:42.218

이건 그냥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.

00:04:42.318 --> 00:04:43.173

외우는 거 아닙니다.

00:04:43.273 --> 00:04:44.622

내포적 의미 먼저 보도록 할게요.

00:04:44.722 --> 00:04:52.718

개념적 의미에 붙어 연상이나 관습 등에
의해 형성되는 의미를 이야기해요.

00:04:52.818 --> 00:04:55.557

이번 담임 선생님은 여자라며?
정말 좋겠다.

00:04:55.657 --> 00:04:59.044

새 학기가 되어서
선생님이 바뀌었어요.

00:04:59.144 --> 00:05:02.531

그런데 여자 선생님이라고
이야기하기에

00:05:02.631 --> 00:05:05.172

거기에서 어머니가
이런 대사를 쳤다고 봅시다.

00:05:05.272 --> 00:05:11.209

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
어머니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실까요?

00:05:11.309 --> 00:05:13.821

여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.

00:05:13.921 --> 00:05:15.112

예상되는 건 이런 거예요.

00:05:15.212 --> 00:05:18.233

친절함, 섬세함, 따뜻함.

00:05:18.333 --> 00:05:22.808

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연상적 의미는
사회적인, 문화적인 요소들이

00:05:22.930 --> 00:05:26.789

굉장히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
무작정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.

00:05:26.889 --> 00:05:30.049

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
그렇잖아요.

00:05:30.149 --> 00:05:33.521

여자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
선생님이 여자라고 했을 때

00:05:33.621 --> 00:05:36.284

섬세하다, 따뜻하다 이런
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

00:05:36.384 --> 00:05:37.831

이렇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.

00:05:37.931 --> 00:05:45.023

그런데 아마조네스 보면
여자가 중심이 되어서

00:05:45.123 --> 00:05:47.620

사냥도 하고 그런 사회가
있다고 하잖아요.

00:05:47.720 --> 00:05:51.060

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이번
담임 선생님은 여자라며?

00:05:51.160 --> 00:05:54.677

너는 정말 여자다워지겠구나, 이
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겠습니까?

00:05:54.777 --> 00:05:56.864

강인해지겠다, 이런 의미로
쓰일 거 아니에요.

00:05:56.964 --> 00:05:59.340

이게 우리나라랑 일치하지
않을 수도 있겠죠.

00:05:59.440 --> 00:06:02.797

그러니까 연상적 의미라는 건
사전적으로 고착화할 수는 없어요.

00:06:02.897 --> 00:06:10.435

그런데 여자를 사전에서 찾으려면
섬세하다, 따뜻하다, 부드럽다.

00:06:10.535 --> 00:06:11.610

이런 거 나와요, 안 나와요?

00:06:11.710 --> 00:06:12.955

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

00:06:13.055 --> 00:06:16.383

그냥 말 그대로 성별과 관련된
부분만 언급하는 거죠.

00:06:16.483 --> 00:06:19.357

첫 번째는 female의
의미가 나올 거고

00:06:19.457 --> 00:06:23.404

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
이런 내포적인 의미.

00:06:23.504 --> 00:06:27.535

그러니까 연상되는 그런 의미 중에
하나라는 거죠, 관습 같은 것에 의해서.

00:06:27.635 --> 00:06:28.411

사회적 의미입니다.

00:06:28.511 --> 00:06:31.379

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
사회적 환경.

00:06:31.479 --> 00:06:34.922

지역이나 직업 등에 영향을
받는 의미라고 보는 건데

00:06:35.022 --> 00:06:36.426

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06:36.526 --> 00:06:39.497

오늘 작업은 힘들겠어, 라는
대사를 썼다고 봅시다.

00:06:39.597 --> 00:06:44.293

그런데 이 대사를 친
화자가 막일꾼이에요.

00:06:44.393 --> 00:06:46.203

또는 건축 디자이너예요.

00:06:46.303 --> 00:06:47.698

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.

00:06:47.798 --> 00:06:51.923

건축 디자이너, 실장인데
도안을 하는 거야.

00:06:52.023 --> 00:06:59.262

그런데 보통 흰 셔츠를 입고 있고
팔을 걷어서 힘줄을 뽐내면서

00:06:59.395 --> 00:07:00.986

오늘 작업 좀 힘들겠어.

00:07:01.086 --> 00:07:03.825

이렇게 하는데 멋져, 세련돼 보여.

00:07:03.925 --> 00:07:07.827

그런데 막일꾼이 오늘 작업
힘들겠어, 라고 이야기했을 때

00:07:07.927 --> 00:07:10.902

우리가 이 작업의 이미지가
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.

00:07:11.002 --> 00:07:16.666

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,
말하는 사람 화자의 사회적인 지위.

00:07:16.766 --> 00:07:19.368

우리가 직업에 귀천을 놓고
이야기할 수는 없지만

00:07:19.468 --> 00:07:21.883

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
수 있다는 겁니다.

00:07:21.983 --> 00:07:26.247

또 제 아내가 곧 온답니다,
라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

00:07:26.347 --> 00:07:28.591

제 여편네가 곧 온대유,
라고 말하는 사람.

00:07:28.691 --> 00:07:31.039

물론 이것도 정말 편견이고
안 좋은 거예요.

00:07:31.139 --> 00:07:33.446

그런데 표준어와 사투리를 쓰는 것.

00:07:33.546 --> 00:07:35.530

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쓰는 것.

00:07:35.630 --> 00:07:37.414

그리고 이 아내와 여편네.

00:07:37.514 --> 00:07:40.123

이게 유의어라고 보기가
사실상 힘들어요.

00:07:40.223 --> 00:07:42.721

여편네라고 하는 어휘가 약간
비칭의 의미가 있으니까.

00:07:42.821 --> 00:07:46.920

그래서 자기 아내를 들어서
아내랑 여편네라고 표현하는 거

00:07:47.020 --> 00:07:48.165

물론 동일한 인물.

00:07:48.265 --> 00:07:52.664

자기와 관계는 동일하겠지만
그 사람이 말하는 성향이

00:07:52.764 --> 00:07:55.553

이 여편네나 사투리에
묻어난다고 봤을 때

00:07:55.653 --> 00:07:57.602

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
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.

00:07:57.702 --> 00:08:02.534
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의미에
해당하는 연상적 의미가 됩니다.

00:08:02.634 --> 00:08:03.474
다음요.

00:08:03.574 --> 00:08:07.100
감정적 의미, 소리의 고저, 강세,
길이, 억양과 같은 요소에 의해

00:08:07.200 --> 00:08:12.556
화자의 개인적 정서가 언어에
반영되어 나타나는 의미입니다.

00:08:12.656 --> 00:08:13.618
상황이 달라요.

00:08:13.718 --> 00:08:14.701
화가 났대요.

00:08:14.801 --> 00:08:18.279
여보세요! 당신이 먼저
시비를 걸었잖소?

00:08:18.379 --> 00:08:19.722
이때 여보세요.

00:08:19.822 --> 00:08:22.728
고객 센터에서 전화를
받으며 여보세요.

00:08:22.828 --> 00:08:23.832
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.

00:08:23.932 --> 00:08:24.812
이러진 않아요.

00:08:24.912 --> 00:08:26.489
그러니까 말투가 완전 다르죠?

00:08:26.589 --> 00:08:27.486
이것도 마찬가지죠.

00:08:27.586 --> 00:08:29.130
여보세요.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.

00:08:29.230 --> 00:08:29.825
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.

00:08:29.925 --> 00:08:32.096
그런데 여기서 친절하게 여보세요,
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소?

00:08:32.196 --> 00:08:33.104
이렇게 가지도 않아요.

00:08:33.204 --> 00:08:36.873

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
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

00:08:36.973 --> 00:08:41.483
사전적 정의가 동일하게 잡히고 이걸 통해서
충분히 알 수 없는 연상적 의미가

00:08:41.583 --> 00:08:47.358
바로 어조에서, 고조에서, 높낮이가
강조되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.

00:08:47.458 --> 00:08:51.228
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
것들도 연상적 의미에 속하고요.

00:08:51.328 --> 00:08:52.194
반사적 의미입니다.

00:08:52.294 --> 00:08:54.730
해당 단어가 가지는
개념적 의미가 아닌

00:08:54.830 --> 00:08:57.570
다른 뜻으로 반응을
일으키면서 나타내는 의미.

00:08:57.670 --> 00:08:58.397
이런 거 되게 많아요.

00:08:58.497 --> 00:09:00.422
그래서 개명 신청하고 있는 것들.

00:09:00.522 --> 00:09:02.325
지역도 개명 신청합니다.

00:09:02.425 --> 00:09:05.314
어떤 시골 동네가 야동리였어요.

00:09:05.414 --> 00:09:09.353
그런데 그 야동리가 원래 옛날부터
자연스럽게 야동리였어요.

00:09:09.453 --> 00:09:14.670
그런데 그 야동이라고 하는 것에
문화가 불과 20년 안쪽으로

00:09:14.770 --> 00:09:19.580
일본 문화 들어오고 생기게 되니까 되게
사람들이 야동리 하면 웃는 거야.

00:09:19.680 --> 00:09:21.927
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
취급 안 당했는데.

00:09:22.027 --> 00:09:25.632
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 너무 안 좋다,
바꾸자, 라고 해서 바꿨어요.

00:09:25.732 --> 00:09:29.530
또 어떤 동네는 상품,
중품, 하품.

00:09:29.630 --> 00:09:32.601

위치에 따라서 상품리,
중품리, 하품리였는데

00:09:32.701 --> 00:09:35.336

하품리 사람들이 하품나.

00:09:35.436 --> 00:09:37.553

그래서 이름 바꿨어요.

00:09:37.653 --> 00:09:42.654

이거는 지명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
공유하면서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 있어.

00:09:42.754 --> 00:09:46.988

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지어주신
이름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.

00:09:47.088 --> 00:09:48.474

안녕하세요.
제 이름은 노숙자입니다.

00:09:48.574 --> 00:09:50.662

성이 노 씨인데,
숙자 얼마나 좋아.

00:09:50.762 --> 00:09:52.154

맑을 숙 자, 아들 자 자.

00:09:52.254 --> 00:09:54.453

맑은 아들이라는 의미에서
이름이 또 남자야.

00:09:54.553 --> 00:09:56.795

그래서 노숙자라고
이름을 지어준 거야.

00:09:56.895 --> 00:10:01.839

그런데 애가 취업하려고 호텔에
제 꿈은 호텔 지배인입니다.

00:10:01.939 --> 00:10:05.441

면접관 중에 안 웃는
사람 있겠습니까?

00:10:05.541 --> 00:10:07.517

절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

00:10:07.617 --> 00:10:10.229

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
의미가 있잖아요.

00:10:10.329 --> 00:10:14.854

한데서 자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의
반사적 의미가 연상되기 때문에

00:10:14.954 --> 00:10:18.956

이런 것들도 연상적
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.

00:10:19.056 --> 00:10:20.676

5번, 연어적 의미인데요.

00:10:20.776 --> 00:10:24.774

이거는 한 표현이 그것의 언어적
환경(문맥)에 나타나 있는

00:10:24.874 --> 00:10:29.115

다른 표현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
가지게 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.

00:10:29.215 --> 00:10:34.181

이 연어적 의미도 사실관계가 아주 긴밀한
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.

00:10:34.281 --> 00:10:37.055

벌써 여기에서도 좀 바뀌는
게 있을 것 같은데

00:10:37.155 --> 00:10:41.495

예쁘다고 하는 단어와 멋지다고
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쓰였을 때

00:10:41.595 --> 00:10:46.156

수식 받는 어휘들이 자유롭지는
못하다는 겁니다.

00:10:46.256 --> 00:10:48.539

예쁜 여자아이, 예쁜
꽃, 예쁜 색.

00:10:48.639 --> 00:10:54.653

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쁜
아저씨, 이건 뭐야?

00:10:54.753 --> 00:10:58.804

요즘에는 글썄요.

00:10:58.904 --> 00:11:01.070

그런데 아직은 별로
인정하고 싶지 않은.

00:11:01.170 --> 00:11:04.664

예쁜 차, 이런 표현 요즘
많이 나오지 않아요?

00:11:04.764 --> 00:11:08.970

그러니까 차도 되게 남성들의 전유물의
느낌이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.

00:11:09.070 --> 00:11:12.829

그래서 정말 색깔도 다양하게
아기자기한 차 꾸미는 거.

00:11:12.929 --> 00:11:14.087

그런 거 예쁜 차라는
표현을 쓰거든요.

00:11:14.187 --> 00:11:17.871

그래서 과거에는 멋진 차가 너무나
잘 어울리는 관계였다고 한다면

00:11:17.971 --> 00:11:19.358
요즘에는 좀 많이 풀린 표현.

00:11:19.458 --> 00:11:22.896
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예쁜
인생, 이걸 좀 이상하거든.

00:11:22.996 --> 00:11:26.113
아직까지도 멋진 인생, 이게 좀
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죠.

00:11:26.213 --> 00:11:29.818
반대로 멋진 여자아이,
이제는 가능해졌어요.

00:11:29.918 --> 00:11:35.132
성적인 차별성이 많이 완화되니까
이런 거 쓸 수 있죠.

00:11:35.232 --> 00:11:37.903
그런데 멋진 꽃, 이거는
아직 안 어울리는 거 같아.

00:11:38.003 --> 00:11:40.517
멋진 색, 이것도 좀
이상한 느낌이 들고요.

00:11:40.617 --> 00:11:43.685
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
연어성이라고 합니다.

00:11:43.785 --> 00:11:45.044
그래서 서로 연결된 어휘.

00:11:45.144 --> 00:11:47.823
어휘 간의 연결성을
고려해보는 거고요.

00:11:47.923 --> 00:11:52.400
이제 앞에 거는 가볍게
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면

00:11:52.500 --> 00:11:53.729
이제부터는 좀 주목해보셔야 됩니다.

00:11:53.829 --> 00:11:56.701
단어의 의미 관계
첫 번째, 유의 관계예요.

00:11:56.801 --> 00:11:59.318
동의 관계는 사실
완벽하게는 없어요.

00:11:59.418 --> 00:12:03.346
완벽한 동의어는 실상 존재하기가
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.

00:12:03.446 --> 00:12:07.781
그러면 유의 관계라고 하는 건
그 말소리는 서로 다르지만

00:12:07.881 --> 00:12:09.673
그 의미가 서로 유사하게 쓰인다.

00:12:09.773 --> 00:12:11.751
그래서 교체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.

00:12:11.851 --> 00:12:15.390
검증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장
내에서 바꿔 쓸 수 있다면

00:12:15.490 --> 00:12:18.053
개가 유의어가 돼요.

00:12:18.750 --> 00:12:21.148
내가 무슨 얼굴로 너를 대하겠니?

00:12:21.248 --> 00:12:23.567
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
대하겠니, 라고 할 때

00:12:23.667 --> 00:12:27.732
이 자리만 교체검증을
했더니 유의어예요.

00:12:27.832 --> 00:12:29.225
비슷한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.

00:12:29.325 --> 00:12:33.663
그런데 이 둘을 놓고 보면 완벽한
동의어가 되기는 어려워요.

00:12:33.763 --> 00:12:38.062
관계를 따지게 되면 얼굴이 낮보다는
좀 의미가 넓은 느낌이 나죠.

00:12:38.162 --> 00:12:41.686
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
이런 의미잖아요.

00:12:41.786 --> 00:12:42.965
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.

00:12:43.065 --> 00:12:44.459
낮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.

00:12:44.559 --> 00:12:46.357
얼굴이 두꺼워도, 낮이 두꺼워도.

00:12:46.457 --> 00:12:47.621
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.

00:12:47.721 --> 00:12:51.281
예를 들면 낮이라고 하는 건 이
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

00:12:51.381 --> 00:12:53.140
얼굴을 썼었다, 낮을 썼어라.

00:12:53.240 --> 00:12:54.156
이렇게 쓸 수 있어요.

00:12:54.256 --> 00:12:58.694

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,
얼굴이 둥그렇게 생겼다,

00:12:58.794 --> 00:13:00.155

얼굴이 각지게 생겼다.

00:13:00.255 --> 00:13:02.921

그런데 낮이 각지게 생겼다, 이런
게 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.

00:13:03.021 --> 00:13:07.720

그래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낮보다는 조금
더 쓸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

00:13:07.820 --> 00:13:11.462

지금 이 문장 내에서는
치환이 가능했지만

00:13:11.562 --> 00:13:14.290

다른 식으로 얼굴이 쓰이는
문장을 바꿨을 때

00:13:14.390 --> 00:13:16.268

그때 낮이 항상 쓰이는 건 아니다.

00:13:16.368 --> 00:13:19.878

그래서 동의어는 아니고
유의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

00:13:19.978 --> 00:13:21.894

또 애네들도 마찬가지예요.

00:13:21.994 --> 00:13:24.506

너무 바빠서 조금도 쉴 틈이 없다.

00:13:24.606 --> 00:13:27.028

너무 바빠서 조금도
쉴 겨를이 없다.

00:13:27.128 --> 00:13:29.855

너무 바빠서 조금도
쉴 사이가 없다.

00:13:29.955 --> 00:13:33.692

틈이 벌어졌다, 겨를이
벌어졌다,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.

00:13:33.792 --> 00:13:37.023

그래서 이때는 서로 간에
치환이 가능했으니까

00:13:37.123 --> 00:13:41.041

유의어라고 인정해주면 되겠지만 아무
때나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
00:13:41.141 --> 00:13:44.984

만약에 어떤 문장이든 계속 바꿀
수 있다, 똑같은 의미다.

00:13:45.084 --> 00:13:46.175

그러면 동의어예요.

00:13:46.275 --> 00:13:48.913

그런데 완벽한 동의어는 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.

00:13:49.013 --> 00:13:52.260

그래서 유의 관계는 이런 식의 말소리는 다르고

00:13:52.360 --> 00:13:55.580

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.

00:13:56.959 --> 00:13:59.608

읽다라고 하는 단어의 유의어들을 한번 볼게요.

00:13:59.708 --> 00:14:01.169

이게 지금 고유어죠?

00:14:01.269 --> 00:14:03.570

그런데 한자어들이 좀 많은 편일 텐데

00:14:03.670 --> 00:14:08.491

이렇게 많은 유의어 관계들이 형성됩니다.

00:14:08.591 --> 00:14:09.853

이렇게 유의어가 많나?

00:14:09.953 --> 00:14:11.614

사실은 더 있어요.

00:14:11.714 --> 00:14:12.646

예문 한번 볼까요?

00:14:12.746 --> 00:14:15.231

어린이들은 책을 또박또박 읽는다.

00:14:15.331 --> 00:14:17.992

이때 읽는다는 어떤 거랑 치환이 가능할까요?

00:14:18.092 --> 00:14:21.200

또박또박 보다, 알아채다, 헤아리다, 이해하다 이상하죠?

00:14:21.300 --> 00:14:22.362

독서하다도 좀 이상하고

00:14:22.462 --> 00:14:26.505

이때는 낭송이나 낭독이라고 하는 어휘가 어울릴 것 같네요.

00:14:26.605 --> 00:14:31.457

소설가인 그가 헤밍웨이의 책을 읽지 않았겠니?

00:14:31.557 --> 00:14:32.349

이렇게 이야기했어요.

00:14:32.449 --> 00:14:35.108

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?

00:14:35.208 --> 00:14:37.197

독서하다, 낭송이나 낭독.

00:14:37.297 --> 00:14:41.379

그러면 소설가인 헤밍웨이의 책을
입으로 꼭 소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.

00:14:41.479 --> 00:14:42.440

낭송이나 낭독은.

00:14:42.540 --> 00:14:44.924

그러면 책을 낭송,
낭독 했어야 됩니까?

00:14:45.024 --> 00:14:46.448

그 의미 아니잖아요?

00:14:46.548 --> 00:14:50.272

독서하지 않았겠니, 보지 않았겠니?
이런 거.

00:14:50.372 --> 00:14:55.185

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
읽고 눈물을 흘리셨다.

00:14:55.285 --> 00:14:58.614

이때는 편지이기 때문에
독서는 어울리지 않아.

00:14:58.714 --> 00:15:00.629

낭송, 낭독을 꼭 해야
되는 것도 아니야.

00:15:00.729 --> 00:15:02.477

이때는 보다가 좀 좋겠죠.

00:15:02.577 --> 00:15:04.416

보고 눈물을 흘리셨다.

00:15:04.516 --> 00:15:08.064

상대방의 표정을 읽고
다음 수를 예측했다.

00:15:08.164 --> 00:15:10.541

알아채다.

00:15:11.339 --> 00:15:17.492

다음, 정치인은 수시로 변하는
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.

00:15:17.592 --> 00:15:20.593

그녀는 어려운 악보도 잘.

00:15:20.693 --> 00:15:23.310

악보이기 때문에 낭송,
낭독, 독서는 안 돼요.

00:15:23.410 --> 00:15:26.832

잘 보는 것도 좀 문제가 돼.

00:15:26.932 --> 00:15:30.568

악보를 이해해서 연주로 잘 반영을 하는
거기 때문에 보는 거로도 좀 어색하죠.

00:15:30.668 --> 00:15:32.603

그래서 이때 이해하다가
좀 어울립니다.

00:15:32.703 --> 00:15:36.520

그래서 지금 문장 내에서는
동일한 읽다이지만

00:15:36.620 --> 00:15:40.668

그 동일한 읽다가 이렇게 여러
가지 유의어들을 갖게 되는 것은

00:15:40.768 --> 00:15:41.719

그 문장의 의미.

00:15:41.819 --> 00:15:47.144

문장에 쓰이는 읽다가 다의적인
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.

00:15:47.244 --> 00:15:48.787

이런 유의어의 유형을
좀 따져볼게요.

00:15:48.887 --> 00:15:51.542

유의 관계는 일단
우리나라에서는 단어가

00:15:51.642 --> 00:15:54.075

고유어, 한자어,
외래어가 있기 때문에

00:15:54.175 --> 00:15:57.898

이 셋 간의 유의 관계가 가장
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15:57.998 --> 00:16:03.007

먼저 빨래의 고유어에 대응하는
유의어가 바로 세탁이죠.

00:16:03.107 --> 00:16:05.677

누리꾼이라는 고유어가 있고
네티즌이라는 외래어가 있죠.

00:16:05.777 --> 00:16:09.106

원래 네티즌이 있었는데 이
네티즌에서 누리꾼으로

00:16:09.206 --> 00:16:12.673

순화하는 단어를 만들어줬는데 이걸
오히려 많이 쓰고 있습니다.

00:16:12.773 --> 00:16:16.850

그래서 오히려 네티즌보다는 요즘에는

누리꾼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네요.

00:16:16.950 --> 00:16:17.798

탁자와 테이블.

00:16:17.898 --> 00:16:22.516

한자어, 그리고 외래어 관계에서도
이렇게 유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.

00:16:22.616 --> 00:16:25.722

또 심지어는 이 고유어, 한자어,
외래어가 다 있는 경우도 있죠.

00:16:25.822 --> 00:16:27.441

무리, 단체 한자어.

00:16:27.541 --> 00:16:28.640

그다음에 그룹, 외래어.

00:16:28.740 --> 00:16:29.291

이런 것들.

00:16:29.391 --> 00:16:31.206

그래서 유의어들이 형성됩니다.

00:16:31.306 --> 00:16:35.067

또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도
유의어가 형성될 수 있어요.

00:16:35.167 --> 00:16:38.873

부엌이라는 표준어에 해당하는
정지라고 하는 방언.

00:16:38.973 --> 00:16:41.177

강원, 경상, 전라, 충북.

00:16:41.277 --> 00:16:43.440

또 부추에 해당하는
방언으로 정구지.

00:16:43.540 --> 00:16:44.976

경상, 전북, 충청.

00:16:45.076 --> 00:16:48.865

이런 것들도 결국 유의어라고
볼 수 있고요.

00:16:48.965 --> 00:16:51.881

일상어와 전문어 관계에
유의어도 많습니다.

00:16:51.981 --> 00:16:55.700

일단 의학 용어로
머큐로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

00:16:55.800 --> 00:16:58.614

빨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
사전에 등재가 되어있어요.

00:16:58.714 --> 00:16:59.827

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.

00:16:59.927 --> 00:17:02.192

상처가 난 데는 빨간약
발라라, 라고 이야기하지

00:17:02.292 --> 00:17:05.504

상처가 난 데 머큐로크롬 발라라,
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몰라요.

00:17:05.604 --> 00:17:06.989

어휘도 몰랐잖아요.

00:17:07.089 --> 00:17:10.669

그런데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
의사들이 전문용어로

00:17:10.769 --> 00:17:14.099

빨간약 발라, 이렇게 이야기하는
건 뭔가 좀 그래요.

00:17:14.199 --> 00:17:18.576

저도 오늘 복장이
의사 복장이잖아요.

00:17:18.676 --> 00:17:19.954

전문용어들 막 쓸 거 아닙니까.

00:17:20.054 --> 00:17:25.081

그래서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
보면 밑에 자막이 엄청 뜨죠?

00:17:25.181 --> 00:17:30.150

뭐라고 내뱉었는데 사실
그게 리얼리티를 위해서는,

00:17:30.250 --> 00:17:33.390

사실성을 위해서는 그렇게
하는 게 맞죠.

00:17:33.490 --> 00:17:35.957

맹장, 충수염 이런 식으로
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고.

00:17:36.057 --> 00:17:37.714

그런데 우리는 맹장
터졌어라고 이야기하지

00:17:37.814 --> 00:17:39.904

그 사람들은 충수염,
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

00:17:40.004 --> 00:17:44.009

그래서 의학 전문 용어들을
우리가 잘 이해 못 하고

00:17:44.109 --> 00:17:46.630

풀어서 해주는 걸
보고 이해하는 건데

00:17:46.730 --> 00:17:50.820

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일상어를 쓰게

되면 뭔가 리얼리티가 떨어질 거예요.

00:17:50.920 --> 00:17:54.198
머큐로크롬, 이런 식으로 쓰겠죠.

00:17:54.298 --> 00:17:57.766
애플야, 국이 짜다.
염화나트륨 좀 넣어라.

00:17:57.866 --> 00:17:59.706
말이 됩니까? 소금이죠.

00:17:59.806 --> 00:18:03.068
그런데 화학 용어로는
염화나트륨 쓰겠죠.

00:18:03.168 --> 00:18:04.183
아동어.

00:18:04.283 --> 00:18:06.249
실제로 이런 단어들도 사전에
다 등재되어있어요.

00:18:06.349 --> 00:18:08.397
과자에 대한 아동어는 까까.

00:18:08.497 --> 00:18:12.379
맘마 먹을까?
밥에 대응하는 유의어가 되겠죠.

00:18:12.479 --> 00:18:13.044
완곡어법.

00:18:13.144 --> 00:18:15.685
우리나라에는 이렇게
완곡어법들이 좀 있습니다.

00:18:15.785 --> 00:18:20.438
그래서 그 어휘가 약간 부정적인
어감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

00:18:20.538 --> 00:18:22.077
단어를 풀어주는 거죠?

00:18:22.177 --> 00:18:23.792
그런데 이런 어휘들뿐만 아니라

00:18:23.892 --> 00:18:26.958
직업과 관련된 어휘들도 완곡어법으로
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.

00:18:27.058 --> 00:18:28.844
그러니까 예를 들면
간호사, 간호원.

00:18:28.944 --> 00:18:30.906
이런 어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

00:18:31.006 --> 00:18:34.342
전문적인 기능을 갖는다는
어휘로 바뀌주려고 하잖아요.

00:18:34.442 --> 00:18:37.578

예를 들면 청소부, 라는 표현은
좀 부정적인 느낌이 나니까

00:18:37.678 --> 00:18:41.193

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쓰게
되는 것으로 좀 바꿔준다든지

00:18:41.293 --> 00:18:43.134

이런 것들이 완곡어법에 해당하는데

00:18:43.234 --> 00:18:44.852

일반적인 건 이런 거죠.

00:18:44.952 --> 00:18:46.793

죽다를 완곡어법으로 돌아가시다.

00:18:46.893 --> 00:18:51.542

변소는 똥의 느낌이 확 나는
한자어를 쓰니까 그거 말고

00:18:51.642 --> 00:18:54.079

화장하는 공간의 의미로
바꾸는 거죠.

00:18:54.179 --> 00:18:54.961

그래서 천연두:마마.

00:18:55.061 --> 00:18:58.317

이거는 옛날에 천연두 이러면
되게 부정적인 어감이었는데

00:18:58.417 --> 00:19:01.063

그 천연두라고 하는
표현을 피하기 위해서.

00:19:01.163 --> 00:19:04.296

그러니까 몸에 안 걸리게 하려고
좀 높여서 표현했다는 거죠.

00:19:04.396 --> 00:19:06.662

그래서 마마, 이런
말을 썼던 겁니다.

00:19:06.762 --> 00:19:07.392

존대 어법.

00:19:07.492 --> 00:19:11.621

우리나라는 높임말이 발달했기 때문에
존대 어법도 많이 발달해있죠.

00:19:11.721 --> 00:19:14.713

밥을 진지로, 집을 댁으로,
아들을 아드님으로.

00:19:14.813 --> 00:19:19.642

또 서술어 쪽, 용언 쪽도 먹다를 잡수시다,
주다를 드리다, 있다를 계시다.

00:19:19.742 --> 00:19:22.702

이런 어휘들 유의 관계라고
볼 수 있습니다.

00:19:22.802 --> 00:19:24.307
다음은 반의 관계를 볼 텐데요.

00:19:24.407 --> 00:19:28.218
반의 관계에서 문제가
좀 가끔 나와요.

00:19:28.318 --> 00:19:33.118
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
대립하는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하죠.

00:19:33.218 --> 00:19:38.408
세 종류로 나누는데 사실은
애는 독립적이에요.

00:19:38.541 --> 00:19:42.486
그리고 이 둘은 서로
간의 비교가 되겠죠.

00:19:42.586 --> 00:19:44.052
완전 상충하는 느낌이 나니까.

00:19:44.152 --> 00:19:48.599
왜냐하면 이 등급 반의어, 또는
정도 반어의라고 하는 것은

00:19:48.699 --> 00:19:51.291
중간항이 있어요.

00:19:51.391 --> 00:19:54.067
그러니까 대립되는 두 어휘를
동시에 부정할 수 있는.

00:19:54.167 --> 00:19:58.922
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간항이
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0:03.843 --> 00:20:07.793
크다를 크지 않아, 라고
했다고 작은 건 아니에요.

00:20:07.893 --> 00:20:10.758
적당한 크기가 있겠죠.

00:20:10.858 --> 00:20:14.059
또 좋지 않아, 그렇다고
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.

00:20:14.159 --> 00:20:17.664
부지런하지 않다고 해서
게으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

00:20:17.764 --> 00:20:22.420
그러니까 애를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
다른 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

00:20:22.520 --> 00:20:25.357
이런 반의어는 중간항이

있다는 거죠.

00:20:25.457 --> 00:20:28.414
상보 반의어, 또는 모순 반의어는

00:20:28.514 --> 00:20:31.970
한 어휘의 부정이 다른
어휘를 의미해버립니다.

00:20:32.070 --> 00:20:34.992
그 사람은 살지 못했다,
죽었다는 이야기예요.

00:20:35.092 --> 00:20:37.808
남자가 아니야, 여자 이상한
거 생각하지 말고.

00:20:37.908 --> 00:20:40.216
그래서 남자가 아니면 그럼 여자.

00:20:40.316 --> 00:20:42.335
출석하지 않았어.
그러면 지각은요?

00:20:42.435 --> 00:20:43.285
그런 거 안 돼.

00:20:43.385 --> 00:20:46.429
그러니까 지각도 결국 아직은
결석 상태니까 출석하지 못했다.

00:20:46.529 --> 00:20:47.868
그러면 결석했다는 이야기예요.

00:20:47.968 --> 00:20:49.516
그래서 애는 어떻게 됩니까?

00:20:49.616 --> 00:20:53.051
중간항이 없어요.

00:20:53.151 --> 00:20:54.486
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.

00:20:54.586 --> 00:20:59.052
이제 마지막으로 방향 반의어
또는 관계 반의어라고 하는 것은

00:20:59.152 --> 00:21:02.600
방향성, 관계성 이런
것들을 나타내는데

00:21:02.700 --> 00:21:04.588
이동적인 느낌도 좀 날 수 있고요.

00:21:04.688 --> 00:21:05.615
어휘들을 보겠습니다.

00:21:05.715 --> 00:21:06.823
아래:위.

00:21:12.327 --> 00:21:13.952

여기입니다.

00:21:14.052 --> 00:21:15.806

선생님이 봤을 때는
여기가 위잖아요.

00:21:15.906 --> 00:21:18.670

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?
아래가 됐죠.

00:21:18.770 --> 00:21:22.461

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
그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

00:21:22.561 --> 00:21:25.071

그러면 관계성과 관련되어서 어휘가

00:21:25.171 --> 00:21:29.077

반의 관계를 맺는 걸 관계
반의어라는 표현을 씁니다.

00:21:29.177 --> 00:21:30.375

부모:자식.

00:21:30.475 --> 00:21:34.572

저는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
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.

00:21:34.672 --> 00:21:36.057

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

00:21:36.157 --> 00:21:40.199

내가 관계를 맺는 거에
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

00:21:40.299 --> 00:21:42.561

그것도 역시 방향
반의어에 해당하는 거죠.

00:21:42.661 --> 00:21:46.152

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
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인 거죠.

00:21:46.252 --> 00:21:47.928

사다:팔다, 시작:끝.

00:21:48.028 --> 00:21:51.839

출발점과 마무리되는 그
반대적인 의미가 되지만

00:21:51.939 --> 00:21:53.569

이것도 방향성과 관계성.

00:21:53.669 --> 00:21:54.399

오다, 가다.

00:21:54.499 --> 00:21:56.721

이런 어휘들은 전체가 다
방향 반의어입니다.

00:21:56.821 --> 00:22:01.476

그러나 애네들은 위에 있는 두 가지랑
엮어서 문제를 내긴 어려워요.

00:22:01.576 --> 00:22:05.007

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
잘 보면 되겠고

00:22:05.107 --> 00:22:07.292

이 둘의 관계는
중간항이 있냐, 없냐.

00:22:07.392 --> 00:22:10.713

이거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.

00:22:10.813 --> 00:22:12.917

특정 어휘의 반의어는
다양할 수 있습니다.

00:22:13.017 --> 00:22:16.505

어휘의 반의어는
다양할 수 있습니다.

00:22:16.605 --> 00:22:22.191

가령 숙녀라고 하는 단어의
반의어는 뭐예요?

00:22:24.576 --> 00:22:27.452

신사, 숙녀 여러분이라는
표현을 쓰니까

00:22:27.552 --> 00:22:30.438

뭔가 남성과 여성의 반대
개념으로 이렇게 쓰면

00:22:30.538 --> 00:22:33.016

신사, 이렇게 쓰면 어떨까,
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

00:22:33.116 --> 00:22:36.804

그런데 숙녀가 다
됐구나, 라는 표현은

00:22:36.904 --> 00:22:39.801

여자인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
의미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22:39.901 --> 00:22:44.459

그러면 여자이지만 성인이
아니다, 라는 존재에서

00:22:44.559 --> 00:22:47.686

소녀를 반의어로 보는 것도
문제가 되진 않아요.

00:22:47.786 --> 00:22:51.591

그러니까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
이걸 의미 자질이라고 합니다.

00:22:51.691 --> 00:22:56.081

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
특성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

00:22:56.181 --> 00:22:59.113
그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만 바꿔서

00:22:59.213 --> 00:23:04.262
반의어를 만드는 경우가
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

00:23:04.362 --> 00:23:09.649
앉다를 예를 들어서,
자리에 앉아요.

00:23:09.749 --> 00:23:14.811
반의어 뭐죠? 서다가 되죠.

00:23:20.181 --> 00:23:23.981
이렇게 하는 거 인정하세요?
내려오다.

00:23:26.046 --> 00:23:27.736
예를 들어 볼까요?

00:23:27.836 --> 00:23:31.989
그는 총무의 자리에 앉았다.

00:23:32.089 --> 00:23:35.055
그는 총무의 자리에서 내려왔다.

00:23:35.155 --> 00:23:36.045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23:36.145 --> 00:23:40.069
그러니까 이때 앉다라고 하는
것은 기본적 의미로 따지게 되면

00:23:40.169 --> 00:23:41.387
애랑 반의 관계가 맞아요.

00:23:41.487 --> 00:23:44.783
그런데 애도 역시 주변적 의미,
확장된 의미가 많잖아요.

00:23:44.883 --> 00:23:49.439
그러면 그 확장된 의미 중에서 어떤
자리를 차지하냐의 뜻이 있기 때문에

00:23:49.539 --> 00:23:53.405
그 차지하냐의 개념에 반대어로는
이걸 쓸 수는 없는 거죠.

00:23:53.505 --> 00:23:54.488
그때는 뭘 써야 된다?

00:23:54.588 --> 00:23:56.402
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

00:23:56.502 --> 00:23:57.238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?

00:23:57.338 --> 00:24:00.340
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

의미 자질이 많으면 많을수록

00:24:00.440 --> 00:24:02.238

반의어도 다양할 수 있어요.

00:24:02.338 --> 00:24:09.207

먹다의 반의어는 굶다 또는 빨다.

00:24:09.307 --> 00:24:10.415

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?

00:24:10.515 --> 00:24:11.335

이런 것들입니다.

00:24:11.435 --> 00:24:15.391

그래서 특정 어휘의 반의어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

00:24:15.491 --> 00:24:20.646

다음, 상하 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.

00:24:20.746 --> 00:24:22.690

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진 않아요.

00:24:22.790 --> 00:24:25.989

예술이라고 하는 좀 광범위한 추상어가 있다고 한다면

00:24:26.089 --> 00:24:30.848

이 안에 다양한 예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.

00:24:30.948 --> 00:24:33.295

미술도 있을 것이고 음악도 있을 것이고

00:24:33.395 --> 00:24:35.334

그중에 또 문학도 있겠죠.

00:24:35.434 --> 00:24:40.484

그런데 문학 안에 음악이나 문학은 같지 않으니까 분명히 구별될 텐데

00:24:40.584 --> 00:24:43.649

이러면 애의 관계가 상의어, 하의어가 되는 겁니다.

00:24:43.749 --> 00:24:46.242

그런데 또 문학 안에도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하겠죠.

00:24:46.342 --> 00:24:47.868

그래서 그중에 하나 소설.

00:24:47.968 --> 00:24:51.036

이러면 애가 이 문학의 하의어가 되는 거죠.

00:24:51.136 --> 00:24:52.859

또 반대로 하의어에서 출발해볼까요?

00:24:52.959 --> 00:24:58.484

개나리에서 확장하게 되면 애를
묶어서 꽃이라고 표현하겠고

00:24:58.584 --> 00:25:02.826

꽃을 다른 것들과 엮어서 우리는
식물이라고 해주면 되겠죠?

00:25:02.926 --> 00:25:06.860

그래서 상의어가 될수록
의미 자질이 적어요.

00:25:06.960 --> 00:25:10.771

개수가 적고 하의어로 갈수록
의미 자질이 좀 많아집니다.

00:25:10.871 --> 00:25:15.118

예를 들면 개나리 같은 게 의미 자질이
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은

00:25:15.218 --> 00:25:18.463

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가면서,
그래야 포함이 되죠?

00:25:18.563 --> 00:25:21.053

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
자질은 다 가져가면서

00:25:21.153 --> 00:25:24.790

암술, 수술 있고 이파리가
있고 이런 거 나오면서

00:25:24.890 --> 00:25:29.747

동시에 노란, 이런 색깔도
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.

00:25:29.847 --> 00:25:32.073

예술은 예술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

00:25:32.173 --> 00:25:36.336

언어로 하는 예술이라는 의미
자질이 추가돼야 될 것이고 언어성.

00:25:36.436 --> 00:25:40.459

그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
서사성이라는 게 추가돼야 되겠죠.

00:25:40.559 --> 00:25:43.001

그래서 의미 자질이
내려갈수록 추가가 돼요.

00:25:43.101 --> 00:25:45.758

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.

00:25:45.858 --> 00:25:51.644

부분과 전체 관계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
부분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

00:25:51.744 --> 00:25:54.956

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하
관계만 구분 잘하면 돼요.

00:25:55.056 --> 00:25:59.488
뭐냐하면, 이거는 분석하다
보면 나오는 거죠.

00:25:59.588 --> 00:26:02.493
옷이라고 하는 단어가
전체 어휘라고 한다면

00:26:02.593 --> 00:26:06.145
이 옷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
부분으로 보는 거예요.

00:26:06.245 --> 00:26:09.892
그래서 소매가 있고
주머니가 있고 단추가 있고

00:26:09.992 --> 00:26:13.928
그러면 주머니, 단추, 소매가
옷의 부분 어휘가 된다.

00:26:14.028 --> 00:26:15.331
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.

00:26:15.431 --> 00:26:18.609
그런데 4번은 별로
중요하게 볼 거는 아니죠.

00:26:18.709 --> 00:26:21.627
이제 5번하고 6번이
최고 중요합니다.

00:26:21.727 --> 00:26:24.674
다의어랑 동음이의 관계를
잘 구별해야 되고

00:26:24.774 --> 00:26:26.902
이 개념을 이번 시간에
설명하는 거지만

00:26:27.002 --> 00:26:29.112
실상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.

00:26:29.212 --> 00:26:33.913
그래야 사전 적용하기 문제들이
정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.

00:26:34.013 --> 00:26:36.771
그러면 그 사전 적용하기는
결국 뭘니까?

00:26:36.871 --> 00:26:40.689
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, 단어의
활용정보, 단어의 발음.

00:26:40.789 --> 00:26:42.900
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.

00:26:43.000 --> 00:26:44.771

그 안에 다의적인 의미를
가지고 있는지.

00:26:44.871 --> 00:26:46.925

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
있기 때문에

00:26:47.025 --> 00:26:48.800

개념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

00:26:48.900 --> 00:26:52.109

실제로는 문제가
여러분은 구원할 거다.

00:26:52.209 --> 00:26:54.493

그래서 이쪽은 실제로 좀
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

00:26:54.593 --> 00:26:55.952

다의는 이겁니다.

00:26:56.052 --> 00:26:59.369

하나의 단어가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
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

00:26:59.469 --> 00:27:02.356

그게 다의어가 되는 거죠.

00:27:02.456 --> 00:27:04.704

가령 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.

00:27:04.804 --> 00:27:08.270

지금 다리에 01이라고 붙어있다는
건 사전을 찾았을 때

00:27:08.370 --> 00:27:11.164

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1개만
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

00:27:11.264 --> 00:27:15.704

그래서 표제어에 첫 번째 표제어로
다리라는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.

00:27:15.804 --> 00:27:24.301

이제 이 다리의 뜻이
하나냐, 예를 쥐보겠습니다.

00:27:24.401 --> 00:27:26.460

다리에 쥐가 났다.

00:27:26.560 --> 00:27:31.008

어디 이야기하는 거야?
사람 몸 하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.

00:27:31.108 --> 00:27:34.871

상체의 아래쪽에 있는 하부예요.

00:27:34.971 --> 00:27:37.709

걸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.

00:27:37.809 --> 00:27:38.415

의자의 다리.

00:27:38.515 --> 00:27:41.328
이거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잖아?
의자니까.

00:27:41.428 --> 00:27:44.116
그러니까 1번이랑 좀
다르게 쓰인 거 아니야?

00:27:44.216 --> 00:27:45.775
3번, 오징어 다리.

00:27:45.875 --> 00:27:47.436
선생님, 이것도 동물 다리잖아요.

00:27:47.536 --> 00:27:49.353
차이가 생겨요.

00:27:49.453 --> 00:27:52.268
뒤에 거 붙시다.

00:27:52.368 --> 00:27:55.599
다리 01번을 보면 의미가
4가지가 나와요.

00:27:55.699 --> 00:27:59.062
첫 번째 걸 중심적 의미, 나머지
2, 3, 4는 주변적 의미죠.

00:27:59.162 --> 00:28:00.376
확장된 거거든요.

00:28:00.476 --> 00:28:01.366
1번 겁니다.

00:28:01.466 --> 00:28:04.695
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
붙어있는 신체의 부분.

00:28:04.795 --> 00:28:06.638
서고 걷고 뛰는 일
파워를 맡아 한다.

00:28:06.738 --> 00:28:07.643
그런데 오징어 다리.

00:28:07.743 --> 00:28:11.676
여러분, 오징어가 몸통
아래에 붙어있는 거라고요?

00:28:11.776 --> 00:28:12.886
어떻게 되어있습니까?

00:28:12.986 --> 00:28:15.146
머리 아래 달려있어요.

00:28:15.246 --> 00:28:17.910
몸통은 여기에 있잖아요.

00:28:18.010 --> 00:28:22.540

오징어나 문어 따위의 동물의 머리에
여러 개 달려 있어, 헤엄.

00:28:22.640 --> 00:28:23.494
서고 걷고 뛰는 일.

00:28:23.594 --> 00:28:25.270
다리로 서고 걷고
뛰는 거 아니잖아요.

00:28:25.370 --> 00:28:26.404
헤엄치는 거잖아요.

00:28:26.504 --> 00:28:29.314
그러니까 먹이를 잡거나
촉각을 가지는 기관.

00:28:29.414 --> 00:28:33.546
의미가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된
오징어 다리가 필요했던 거예요.

00:28:33.646 --> 00:28:36.777
그래서 의미가 추가되죠.

00:28:36.877 --> 00:28:38.937
다음, 안경다리가 금으로.

00:28:39.037 --> 00:28:41.259
선생님도 지금 안경
쓰고 있지만 안경다리.

00:28:41.359 --> 00:28:46.326
그럼 안경 다리도
역시 걷는 거 아니잖아요.

00:28:46.426 --> 00:28:51.808
그러니까 뭔가 뒷부분인데 이것을
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쓴 건 아니고

00:28:51.908 --> 00:28:53.834
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죠.

00:28:53.934 --> 00:28:56.051
사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
쓰는 게 아니에요.

00:28:56.151 --> 00:29:00.918
사람이 많이 쓰는 것들을 사전에
등재하기 시작하는 거죠.

00:29:01.059 --> 00:29:03.694
그래서 4번의 경우도 이렇게
의미로 나와 있습니다.

00:29:03.794 --> 00:29:07.025
안경의 테에 붙어서
귀에 걸게 된 부분.

00:29:07.125 --> 00:29:09.041
그래서 의미가 원래 확장된 겁니다.

00:29:09.141 --> 00:29:12.782

다리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시기에는
온전히 사람 다리로만 쓰였어요.

00:29:12.882 --> 00:29:15.828

그런데 그것이 동물 다리,
그리고 물체의 하부.

00:29:15.928 --> 00:29:19.056

이런 것들로 의미를 확장하기
시작하고 오징어 다리.

00:29:19.156 --> 00:29:20.511

더군다나 안경다리까지.

00:29:20.611 --> 00:29:23.486

안경이라는 물건이 서양에서
들어온 거 아닙니까.

00:29:23.586 --> 00:29:26.980

그러면 중세시기 때 안경다리,
이런 말은 아예 없었던 거죠.

00:29:27.080 --> 00:29:29.618

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식으로.

00:29:29.718 --> 00:29:33.093

그런데 어쨌든 이 첫 번째,
다리라고 하는 단어는

00:29:33.193 --> 00:29:35.186

다의어구나, 라는 걸
알 수 있는 겁니다.

00:29:35.286 --> 00:29:37.830

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

00:29:37.930 --> 00:29:40.393

비교를 해보자면 무릎이라는 단어.

00:29:40.493 --> 00:29:42.974

신체의 일부인 이 무릎을
사전에 찾아봤어요.

00:29:43.074 --> 00:29:45.671

그랬더니 애는 1번이 없어.

00:29:45.771 --> 00:29:46.697

그냥 이렇게 되어있어.

00:29:46.797 --> 00:29:49.860

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
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.

00:29:49.960 --> 00:29:51.610

이러고 끝.

00:29:51.710 --> 00:29:52.864

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

00:29:52.964 --> 00:29:56.645

다리01은 다의어, 무릎이라는 단어는

00:29:56.745 --> 00:29:59.496

단일한 의미를 가지고
있다고 해서 단의어.

00:29:59.596 --> 00:30:00.337

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30:00.437 --> 00:30:05.689

그래서 이렇게 다의어,
단의어가 나뉘는 거고요.

00:30:05.789 --> 00:30:10.706

사실 이렇게 명사들이
다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

00:30:10.806 --> 00:30:13.714

동사나 형용사가 다의성을 가지고
있는 게 훨씬 더 많죠.

00:30:13.814 --> 00:30:14.945

그래서 그쪽 예문도 하나 봅시다.

00:30:15.045 --> 00:30:15.888

울다예요.

00:30:15.988 --> 00:30:19.476

울다도 지금 찾아보니까
01로 잡혀있다는 이야기는

00:30:19.576 --> 00:30:20.938

단어가 더 있다는 이야기에요.

00:30:21.038 --> 00:30:22.670

단어의 예문들이 이렇게습니다.

00:30:22.770 --> 00:30:24.767

아이가 젖을 달라고 운다.

00:30:24.867 --> 00:30:26.781

어디에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렸다.

00:30:26.881 --> 00:30:28.429

이거 같아요?

00:30:28.529 --> 00:30:37.840

이건 응애응애 하면서 슬픔 또는 자기네
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그 울음이고

00:30:37.940 --> 00:30:44.310

여기서는 늑대가 우는 것이
슬퍼서 우는 거 아니잖아.

00:30:44.410 --> 00:30:45.053

닭이 울었다.

00:30:45.153 --> 00:30:48.386

닭이 흐느끼며 꼬끼오하는
거 아니거든.

00:30:48.486 --> 00:30:50.300

지금 동물의 울음은
이 울음과 달라.

00:30:50.400 --> 00:30:51.946

그래서 따로 나눠주는 거죠.

00:30:52.046 --> 00:30:55.300

창문이 바람에 울어요?

00:30:55.400 --> 00:30:57.388

아니잖아요, 이거는 흔들리는
거 이야기하는 거잖아.

00:30:57.488 --> 00:31:04.060

다음, 전화벨이 그렇게 따르릉
우는데도 소리를 내다의 의미인데

00:31:04.195 --> 00:31:09.070

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,
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

00:31:09.170 --> 00:31:10.440

의미적 유사성은 있어요.

00:31:10.540 --> 00:31:12.811

소리를 낸다는 의미적
유사성은 있어야 돼.

00:31:12.911 --> 00:31:15.332

그러니까 같은 단어
안에 묶어주는 거지.

00:31:15.432 --> 00:31:18.402

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면
다르다는 거예요.

00:31:18.502 --> 00:31:19.324

역시 사전정의 붙시다.

00:31:19.424 --> 00:31:21.925

첫 번째, 기쁨, 슬픔 따위의
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

00:31:22.025 --> 00:31:23.784

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.

00:31:23.884 --> 00:31:24.547

배가 고파요.

00:31:24.647 --> 00:31:25.543

아기가 배가 아픈 거야.

00:31:25.643 --> 00:31:27.687

응애하고 울어요.

00:31:27.787 --> 00:31:30.634

그런데 짐승, 벌레, 바람
따위가 소리를 내다.

00:31:30.774 --> 00:31:33.753

아까 늑대가 우는 거.

00:31:33.853 --> 00:31:35.918

그다음에 창문이 울어요.

00:31:36.018 --> 00:31:36.928

흔들리는 거.

00:31:37.028 --> 00:31:39.299

종이나 천둥, 벨

따위가 소리를 내다.

00:31:39.399 --> 00:31:41.543

그런데 애는 의미가 5번도

있고 6번도 있었어요.

00:31:41.643 --> 00:31:44.778

보니까 6번에 비유적으로 상대를

때리거나 공격할 수 없어

00:31:44.878 --> 00:31:45.895

분한 마음을 느끼다.

00:31:45.995 --> 00:31:46.628

예문 들어볼까요?

00:31:46.728 --> 00:31:48.770

주먹이 운다, 이런 거야.

00:31:48.870 --> 00:31:50.001

이거예요.

00:31:50.101 --> 00:31:54.423

주먹이 운다 이거를 울다 2번 하면

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

00:31:54.523 --> 00:31:57.230

분명 애가 소리를 내진

않지만, 비유의 의미.

00:31:57.330 --> 00:32:01.007

그만큼 여기에 감정을

표출하는 의도로 쓴 거니까

00:32:01.107 --> 00:32:04.124

이 의미랑 유사성이

있어, 라고 보고

00:32:04.224 --> 00:32:06.940

6번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.

00:32:07.040 --> 00:32:08.558

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.

00:32:08.658 --> 00:32:12.031

왜?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.

00:32:12.131 --> 00:32:16.410

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

여러분이 어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.

00:32:16.548 --> 00:32:18.136
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니까.

00:32:18.276 --> 00:32:21.107
이게 일일이 찾아보기
힘드니까 문제를 풀면서

00:32:21.207 --> 00:32:23.065
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보고

00:32:23.165 --> 00:32:26.151
이렇게 의미 차이가 나는구나, 라는
걸 익혀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

00:32:26.251 --> 00:32:30.171
여러분의 어휘의 장을
넓힐 수 있을 거예요.

00:32:30.271 --> 00:32:32.601
그러면 또 비교해볼게요.

00:32:32.701 --> 00:32:34.225
그을다, 그슬다.

00:32:34.325 --> 00:32:35.239
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.

00:32:35.339 --> 00:32:36.676
그을다, 그슬다는 달라요.

00:32:36.776 --> 00:32:42.136
그슬다,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
새우를 불에 그슬어서 먹었어.

00:32:42.236 --> 00:32:45.060
겉만 살짝 타게 해서
먹는 그런 게 그슬다고

00:32:45.160 --> 00:32:48.865
그을다는 햇볕이나 불, 연기 따위를
오래 쬌어 검게 되는 거예요.

00:32:48.965 --> 00:32:52.498
그러니까 살이 좀 탔네?

00:32:52.598 --> 00:32:54.275
왜 이렇게 그슬었지,
하면 잘못 쓰는 거야.

00:32:54.375 --> 00:32:57.092
불에 데우는 거니까
안 되고 이때 그을다.

00:32:57.192 --> 00:32:58.937
그을다도 보면 1번, 2번 없어.

00:32:59.037 --> 00:33:01.032
그냥 이 의미 하나만 딱 있네요.

00:33:01.132 --> 00:33:03.035
이게 뭐다?

단의어가 된다는 이야기죠.

00:33:03.135 --> 00:33:04.519
다의어, 단의어.

00:33:04.619 --> 00:33:06.819
그러면 이제 다의어가
뭔지 알았어요.

00:33:06.919 --> 00:33:12.176
하나의 단어 안에, 표제어 안에
하위 항목이 여러 개 달려있으면

00:33:12.276 --> 00:33:13.416
그게 다의어구나.

00:33:13.516 --> 00:33:16.984
그런데 동음이의 관계는
뭐냐, 같은 발음은 나요.

00:33:17.084 --> 00:33:19.999
그런데 의미상 관련이 없다.

00:33:20.099 --> 00:33:25.342
문제로는 안 내지만 사실 이런 것도
동음이의 관계라고 보기는 합니다.

00:33:33.183 --> 00:33:36.447
이렇게 나가면 이것도
동음이의 관계라고 보겠네요.

00:33:36.547 --> 00:33:37.759
왜냐하면, 정의는 맞거든요.

00:33:37.859 --> 00:33:41.059
같은 발음이 나는데
의미상 관련이 없다.

00:33:41.159 --> 00:33:44.027
이게 무슨 이야기냐, 이렇게
발음이 나는 걸 지금 썼거든요.

00:33:44.127 --> 00:33:47.371
그런데 이거를 형태로 쓰게
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

00:33:47.471 --> 00:33:50.375
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.

00:33:50.475 --> 00:33:51.708
그러니까 이 의미가
두 가지가 있죠.

00:33:51.808 --> 00:33:55.563
국수를 후후 불어서 먹으라는 건지
국수를 주문해서 먹으라는 건지.

00:33:55.663 --> 00:33:59.122
그런데 발음이 동일하니까 이
둘의 관계도 동음이의 관계다.

00:33:59.222 --> 00:34:00.939

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.

00:34:01.039 --> 00:34:06.032

그런데 여기서 다룰 것은 형태로도
좀 동일한 걸 보려고 합니다.

00:34:06.132 --> 00:34:07.715

아까 전에 다리 01번을 봤잖아요.

00:34:07.815 --> 00:34:09.941

거기에 의미가 4가지나 있었죠?

00:34:10.041 --> 00:34:12.787

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만
줄여서 써왔고.

00:34:12.887 --> 00:34:17.769

사전에 보면 다리 02와
다리 03이 더 있어요.

00:34:17.869 --> 00:34:19.683

예상되는 다리가 있을 거야.

00:34:19.783 --> 00:34:21.831

다리 하면 동음이의 관계.

00:34:21.931 --> 00:34:27.245

사람 다리 말고 교각, 가로지르는.

00:34:27.345 --> 00:34:30.292

그런데 새로운 다리가 더 있다는
데 의아하지 않습니까?

00:34:30.392 --> 00:34:33.053

뭐야 다리가 왜 또 있어?
뭐가 더 있어?

00:34:33.153 --> 00:34:33.870

의미 볼게요.

00:34:33.970 --> 00:34:36.838

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이
알고 있는 그 다리.

00:34:36.938 --> 00:34:38.918

홍수로 다리가 끊어졌다.

00:34:39.018 --> 00:34:43.313

우리가 둘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.

00:34:43.413 --> 00:34:44.487

이게 기본 의미예요.

00:34:44.587 --> 00:34:46.904

그러니까 실제 가로지르는
교각을 이야기합니다.

00:34:47.004 --> 00:34:49.485

그런데 이 교각이나
교량이라고 하는 의미가

00:34:49.585 --> 00:34:52.657

둘을 연결 짓는다고 하는 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뭐예요?

00:34:52.757 --> 00:34:56.085

관계를 이어준다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.

00:34:56.185 --> 00:35:01.398

그런데 다리 03은 뭐냐면, 김 소저는 땅았던 다리를 풀었다.

00:35:01.498 --> 00:35:02.849

꼬았던 다리가 아니에요.

00:35:02.949 --> 00:35:04.209

땅았던 다리라고 했어요.

00:35:04.309 --> 00:35:05.825

그러니까 다리 이쪽이 아니에요.

00:35:05.925 --> 00:35:12.420

이게 어떤 거냐면, 일단 다리 01, 다리 02, 다리 03.

00:35:12.520 --> 00:35:17.281

예전에 여자들이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판머리.

00:35:17.381 --> 00:35:18.905

이해되십니까?

00:35:19.005 --> 00:35:19.868

가체라고 하죠.

00:35:19.968 --> 00:35:22.003

가짜 머리인데, 붙임머리.

00:35:22.103 --> 00:35:24.044

여기다 머리를 엮어서 이어낸 거야.

00:35:24.144 --> 00:35:26.028

그거를 다리라는 말로 썼던 거예요.

00:35:26.128 --> 00:35:30.014

그래서 그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있는데 개는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으니까

00:35:30.114 --> 00:35:34.759

그 다리 03은 어쨌든 단어어가 되는 것이고 애네는 다의어예요.

00:35:34.859 --> 00:35:39.956

이미 앞쪽에 보시면 의미가 아까는 애 4개, 애도 4개인가 그렇거든요.

00:35:40.056 --> 00:35:43.081

그래서 더 쓰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

00:35:43.181 --> 00:35:44.316
일단 시설물의 측면.

00:35:44.416 --> 00:35:46.890
가로지르는 시설물,
관계를 이어주는 거.

00:35:46.990 --> 00:35:48.950
이렇게 의미가 쓰여있죠?

00:35:49.050 --> 00:35:52.518
어쨌든 다리 01은 다의어,
다리 02는 다의어,

00:35:52.618 --> 00:35:57.370
다리 03은 단의어고 이 다리 01,
02, 03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?

00:35:57.470 --> 00:35:59.251
동음이의 관계다.

00:35:59.351 --> 00:36:03.462
같은 의미인데 다를 이,
뜻 의 해서 동음이의 관계다.

00:36:03.562 --> 00:36:04.508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

00:36:04.608 --> 00:36:06.071
아까 전에 이거 다시 볼게요.

00:36:06.171 --> 00:36:08.840
울다가 소리 내어 우는
거, 짐승 우는 거.

00:36:08.940 --> 00:36:09.750
이거랑 이야기했잖아요.

00:36:09.850 --> 00:36:12.326
애도 다른 울다가 있었던 거야.

00:36:12.426 --> 00:36:15.607
울다 02번 어떤 거냐,
예문이 이렇게입니다.

00:36:15.707 --> 00:36:18.198
방에 습기가 차서 장판이 울었다.

00:36:18.298 --> 00:36:22.907
방에 습기가 차서 슬퍼,
이게 아니란 말이에요.

00:36:23.007 --> 00:36:26.084
울다 01은 이런 의미들이었고
울다 02는 이렇게입니다.

00:36:26.184 --> 00:36:30.094
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
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.

00:36:30.194 --> 00:36:32.940

애는 의미가 더 없었기 때문에
이 자체는 단어예요.

00:36:33.040 --> 00:36:37.233
그런데 울다 01과 울다 02는
의미적 유사성이 전혀 없어요.

00:36:37.333 --> 00:36:38.193
완전 달라요.

00:36:38.293 --> 00:36:42.220
그래서 발음은 같지만,
뜻은 다른, 뭐라고 한다?

00:36:42.320 --> 00:36:44.327
동음이의 관계다,
라고 보는 겁니다.

00:36:44.427 --> 00:36:48.410
그렇게 해서 단어의 의미 관계,
동음이의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해봤고요.

00:36:48.510 --> 00:36:50.805
이어서 어휘는 아니에요.

00:36:50.905 --> 00:36:55.878
단어의 의미 관계는 아니지만,
중의적인 문장이 형성되었을 때

00:36:55.978 --> 00:36:59.566
이 중의문이 왜 중언지를
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

00:36:59.666 --> 00:37:03.291
이 중의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도
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00:37:03.391 --> 00:37:05.362
그래서 해결 방법을 좀
확인해보려고 해.

00:37:05.462 --> 00:37:09.549
첫 번째, 사실 더 있습니다.

00:37:09.649 --> 00:37:12.511
특히나 어휘적인 중의문도
기본적으로 많아요.

00:37:12.611 --> 00:37:16.910
아까 동음이의어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
다양한 중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

00:37:17.010 --> 00:37:27.481
그래서 나는 어제 배를
샀다고 이야기한다면

00:37:27.581 --> 00:37:29.088
중의문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.

00:37:29.188 --> 00:37:31.289
왜? 어휘 때문에.

00:37:31.389 --> 00:37:33.889

나 어제 배를 샀다,
이건 설마 아니겠지.

00:37:33.989 --> 00:37:37.730

먹는 배를 샀다일 수도 있지만
만약에 내가 만수르야.

00:37:37.830 --> 00:37:39.868

저라면 못 사죠,
제가 어떻게 삽니까.

00:37:39.968 --> 00:37:40.684

그런데 만수르야.

00:37:40.784 --> 00:37:42.911

그러면 배 세 척 샀어,
이럴 수 있거든요.

00:37:43.011 --> 00:37:44.698

나 어제 배 샀네.

00:37:44.798 --> 00:37:46.657

만수르면 오히려 나 어제 배 샀어.

00:37:46.757 --> 00:37:49.446

이러면 설마 이거 샀다고
이야기하지 않고

00:37:49.546 --> 00:37:52.058

타는 배, 라고 생각을
할 수도 있어요, 일반적으로.

00:37:52.158 --> 00:37:55.051

그래서 이런 게 중의를
형성해주는 거죠.

00:37:55.151 --> 00:37:56.927

이런 건 확실하게
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.

00:37:57.027 --> 00:38:00.376

먹는 배를 샀다라든지
타는 배를 샀다라든지

00:38:00.476 --> 00:38:03.380

선박을 샀다, 이렇게 어휘를
바꿔주든지 하면 되겠죠.

00:38:03.480 --> 00:38:06.916

이제 그러는 거 말고도
다양한 중의문이 형성되는데

00:38:07.016 --> 00:38:08.232

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8:08.332 --> 00:38:10.966

첫 번째는 주식 관계에
의한 중의문이라고 해서

00:38:11.066 --> 00:38:15.041

애가 왜 중의가 형성될까요?
한번 보세요.

00:38:19.232 --> 00:38:22.304

용감한의 수식 범위 때문이죠?

00:38:22.404 --> 00:38:25.374

누가 용감한 거야? 그가 용감한
거야, 아버지가 용감한 거야?

00:38:25.474 --> 00:38:26.513

그게 애매하다는 겁니다.

00:38:26.613 --> 00:38:30.070

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줄
거냐, 여러 방법이 있어요.

00:38:30.170 --> 00:38:36.382

일단 그를 용감하게 만들어보자고요.

00:38:36.511 --> 00:38:41.026

그러면 여기다 쉼표를
써주면 됩니다.

00:38:42.505 --> 00:38:46.272

쉼표라고 하는 건 휴지, 호흡을 쉬어주는
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38:46.372 --> 00:38:49.496

용감한 그의,
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38:49.596 --> 00:38:52.629

그래서 그가 용감한가부터
읽게 되는 느낌을 주므로

00:38:52.729 --> 00:38:55.724

이때 그를 꾸며주려고 하는
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

00:38:55.824 --> 00:38:58.381

반대로 아버지를 한번 높여줄게요.

00:38:58.481 --> 00:39:02.124

그러면 쉼표를 찍어주는
위치가 여기로 바뀌죠.

00:39:02.224 --> 00:39:04.772

용감한, 그의 아버지는.
이렇게 됩니다.

00:39:04.872 --> 00:39:07.339

그랬을 때는 이 아버지를
높이기 위함이고요.

00:39:07.439 --> 00:39:10.375

또 한 가지 방법은
이 용감한의 위치를

00:39:10.475 --> 00:39:14.264

여기다 바뀌주면 아주
명쾌해지죠, 쉽죠 없이.

00:39:14.364 --> 00:39:17.077

그의 용감한 아버지는,
이렇게 해준다면

00:39:17.177 --> 00:39:18.264

아버지가 용감해지죠?

00:39:18.364 --> 00:39:22.128

두 번째, 병렬 구문에
의한 중의문입니다.

00:39:22.228 --> 00:39:28.149

어머니께서 사과와 귤
두 개를 주셨다.

00:39:34.863 --> 00:39:38.650

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고 하는데
'와'를 지금 썼단 말이에요.

00:39:38.750 --> 00:39:41.921

그런데 이 '와'를 쓴
것이 두 개라고 하는

00:39:42.021 --> 00:39:46.046

수량과 함께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.

00:39:46.146 --> 00:39:48.480

사과 하나와 귤
하나에서 두 개인 건지

00:39:48.580 --> 00:39:51.100

사과 하나와 귤
두 개를 이야기한 건지

00:39:51.200 --> 00:39:55.091

사과 두 개, 귤 두 개를 이야기한
건지 다양한 중의가 형성됩니다.

00:39:55.191 --> 00:39:58.315

그래서 이런 모호한 문장에서
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.

00:39:58.415 --> 00:40:01.558

정확하게 어머니께서
사과 하나와 귤 하나.

00:40:01.658 --> 00:40:04.656

아니면 사과와 귤을 각각 두 개씩.

00:40:04.756 --> 00:40:07.367

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.

00:40:07.467 --> 00:40:08.695

3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40:08.795 --> 00:40:11.392

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문이에요.

00:40:11.492 --> 00:40:12.532
애도 풀어줘야 돼요.

00:40:12.632 --> 00:40:15.089
왜냐하면, 일단 왜
증인지 이해되세요?

00:40:15.189 --> 00:40:17.183
남편은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.

00:40:17.283 --> 00:40:33.593
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나와 축구인지
나와 남편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.

00:40:33.693 --> 00:40:36.617
남편은 나보다 축구를
더 좋아한다는 것이

00:40:36.717 --> 00:40:39.902
내가 자기야, 나랑 놀러 가자, 라고
해도 안 돼, 나 축구 봐야 돼.

00:40:40.002 --> 00:40:41.010
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40:41.110 --> 00:40:44.410
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법은
좀 어쩔 수 없어요.

00:40:44.510 --> 00:40:45.233
풀어줄 수밖에 없어요.

00:40:45.333 --> 00:40:49.717
완벽하게 중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
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는

00:40:49.817 --> 00:40:52.220
축구를 더 좋아한다.

00:40:52.320 --> 00:40:54.137
밑의 거일 수 있어요.

00:40:54.237 --> 00:40:58.111
나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
내가 축구를 한 10시간 봐.

00:40:58.211 --> 00:41:02.030
그래서 나는 영국 리그하고 스페인
리그를 즐겨보는 편이야.

00:41:02.130 --> 00:41:09.190
그런데 남편은 영국 리그,
스페인 리그, 이탈리아 리그,

00:41:09.290 --> 00:41:12.828
그다음에 중국 리그, 우리나라
K리그 다 보는 거야.

00:41:12.928 --> 00:41:16.454
그러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

것보다 더 축구를 좋아한다.

00:41:16.554 --> 00:41:17.626
이렇게 풀어주는 거죠.

00:41:17.726 --> 00:41:18.438
다시요.

00:41:18.538 --> 00:41:21.004
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는
축구를 더 좋아한다.

00:41:21.104 --> 00:41:24.950
남편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
것보다 더 축구를 좋아한다.

00:41:25.050 --> 00:41:27.859
이렇게 문장을 풀어주는
방법이 있습니다.

00:41:27.959 --> 00:41:30.351
그런데 여러분, 이거 지금
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

00:41:30.451 --> 00:41:32.090
절대 비문은 아니에요.

00:41:32.190 --> 00:41:35.439
애네들이 잘못된 문장이 아니에요.

00:41:35.539 --> 00:41:37.232
모호할 뿐입니다.

00:41:37.359 --> 00:41:41.856
그래서 이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물어볼
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고요.

00:41:41.956 --> 00:41:46.431
다음 4번, 연결
어미에 의한 중의문.

00:41:46.531 --> 00:41:48.993
~하면서라고 하는
연결 어미 때문인데

00:41:49.093 --> 00:41:51.423
점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
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.

00:41:51.523 --> 00:41:53.833
누가 웃는 거야?

00:41:53.933 --> 00:41:56.547
점원이 웃는 거야,
손님이 웃는 거야?

00:41:56.647 --> 00:41:59.216
그래서 역시 이것도 쉽표가 좋아요.

00:41:59.316 --> 00:42:02.372
이렇게 찍어주면 누가 웃는 거예요?

00:42:03.649 --> 00:42:04.795

손님이 웃는 거죠.

00:42:04.895 --> 00:42:06.791

점원은,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.

00:42:06.891 --> 00:42:09.981

이렇게 되는 거니까 손님을
웃게 만들어줍니다.

00:42:10.081 --> 00:42:15.043

그런데 만약 점원은
웃으면서에다가 심표를 찍어주면

00:42:15.143 --> 00:42:17.731

점원은 웃으면서,
들어오는 손님에게.

00:42:17.831 --> 00:42:21.007

그러면 이때는 누구를?
점원을 높여주겠다는 거죠.

00:42:21.107 --> 00:42:23.490

그런데 이런 걸 해소할 수
있는 방법으로

00:42:23.590 --> 00:42:29.670

여러분이 만약에 웃으면서와
들어오는의 위치를 바꿔주겠다.

00:42:29.770 --> 00:42:36.344

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
들어오면서 웃는.

00:42:36.444 --> 00:42:37.894

이렇게 되잖아요.

00:42:37.994 --> 00:42:40.192

될 것 같지만 이것도
여전히 중의야.

00:42:40.292 --> 00:42:42.406

왜냐하면 웃는 건
손님인 건 알겠거든.

00:42:42.506 --> 00:42:45.611

그런데 여전히 들어오는 게
누구인지를 모르겠잖아.

00:42:45.711 --> 00:42:48.050

점원은 들어오면서, 웃는 손님인지

00:42:48.150 --> 00:42:51.237

아니면 점원은, 들어오면서 웃는
손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

00:42:51.337 --> 00:42:54.463

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준다,
이런 건 적절치 않은 거죠.

00:42:54.563 --> 00:42:58.983

그래서 방법론을 따져봤을 때 쉽표를
찍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?

00:42:59.083 --> 00:43:01.991

다음 5번, 주어부의
범위에 의한 중의문.

00:43:02.091 --> 00:43:04.653

이제 이러면 이중 주어
구문이 형성돼요.

00:43:04.753 --> 00:43:07.251

선생님이 학생이 많다,
이렇게 들어옵니다.

00:43:07.351 --> 00:43:12.155

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선생님이 보고
싶은 학생이 많다가 왜 중의인지 알겠죠?

00:43:12.255 --> 00:43:15.006

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
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

00:43:15.106 --> 00:43:18.860

아니면 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
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인지.

00:43:18.960 --> 00:43:22.003

그래서 선생님을 보고
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.

00:43:22.103 --> 00:43:28.539

이렇게 바꿔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
많은 학생을 보고 싶어 한다.

00:43:28.639 --> 00:43:30.090

이런 식으로 풀어주든지.

00:43:30.190 --> 00:43:31.906

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.

00:43:32.006 --> 00:43:34.364

그래서 중의가 형성됐다는
걸 확인하시고

00:43:34.464 --> 00:43:37.175

만약에 답지에 풀어준
게 나왔을 때.

00:43:37.275 --> 00:43:41.254

중의문을 해결해준 게 나왔을 때
적절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.

00:43:41.354 --> 00:43:43.193

부정 표현이 의한 중의문도 있어요.

00:43:43.293 --> 00:43:44.575

나는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다.

00:43:44.675 --> 00:43:45.563

이게 어떻게 비문이겠어요.

00:43:45.663 --> 00:43:46.425
비문 아니에요.

00:43:46.525 --> 00:43:47.472
좋은 문장이예요.

00:43:47.572 --> 00:43:48.621
문장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.

00:43:48.721 --> 00:43:50.620
그런데 이게 왜 중의입니까?

00:43:50.720 --> 00:43:51.750
이러면 되는 거죠.

00:43:51.850 --> 00:43:55.621
나는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다.

00:43:55.721 --> 00:43:58.753
나는 영철이 동생을 때렸어.

00:43:58.853 --> 00:44:00.445
나는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어.

00:44:00.545 --> 00:44:02.870
영철이를 꼬집었어.

00:44:02.970 --> 00:44:05.833
그러니까 이 않았다고 하는
부정이 애를 부정하는 건지

00:44:05.933 --> 00:44:09.365
애를 부정하는 건지가
애매하다는 거죠.

00:44:09.465 --> 00:44:10.648
왜 중의인지 알겠죠?

00:44:10.748 --> 00:44:13.642
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,

00:44:13.742 --> 00:44:15.755
방법은 일단 길게 풀어주는
방법이 하나 있어요.

00:44:15.855 --> 00:44:18.886
나는 영철이를 때리지
않고 꼬집었다.

00:44:18.986 --> 00:44:20.968
이러면 뭘 부정하는지 알겠어요.

00:44:21.068 --> 00:44:24.062
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
지저분하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

00:44:24.162 --> 00:44:25.880
보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

00:44:25.980 --> 00:44:28.477

그래서 나는 영철이는
때리지 않았다.

00:44:28.577 --> 00:44:31.689

그러면 누군가를 때리긴 때렸지만,
영철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져요.

00:44:31.789 --> 00:44:34.597

또는 나는 영철이를
때리지는 않았다.

00:44:34.697 --> 00:44:36.436

그러면 뭔가 행위를 했다는
건 알 수 있어요.

00:44:36.536 --> 00:44:38.605

그러나 때린 건 아니라는
걸 부정해주죠.

00:44:38.705 --> 00:44:41.781

그래서 이 '는'이라고
하는 보조사를 넣어주므로

00:44:41.881 --> 00:44:47.093

강조지점을 알려주면
중의가 해소가 됩니다.

00:44:47.193 --> 00:44:48.607

대용어에 의한 중의문이 있습니다.

00:44:48.707 --> 00:44:51.488

이제 이런 대용어는 재귀
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죠?

00:44:51.588 --> 00:44:54.705

그래서 민주는 진아를 자기의
집에서 공부하게 했다.

00:44:54.805 --> 00:44:55.993

비문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.

00:44:56.093 --> 00:44:59.522

그런데 이때 자기라고
하는 재귀 대명사가

00:44:59.622 --> 00:45:02.219

민주인지 진아인지가 좀 애매해.

00:45:02.319 --> 00:45:04.470

그래서 이것도 역시
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.

00:45:04.570 --> 00:45:07.075

민주는 진아를 민주의
집에서 공부하게 했다.

00:45:07.175 --> 00:45:09.789

민주는 진아를 진아의
집에서 공부하게 했다.

00:45:09.889 --> 00:45:14.866

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구체적 이름을
넣어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줄 수가 있습니다.

00:45:14.966 --> 00:45:17.863

8번, 의존명사에 의한
중의문이 있네요.

00:45:17.963 --> 00:45:21.440

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.

00:45:21.540 --> 00:45:23.254

이게 왜?
이럴 수 있어요.

00:45:23.354 --> 00:45:26.009

이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
안에 내포하는 의미가

00:45:26.109 --> 00:45:28.244

걷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건지

00:45:28.344 --> 00:45:31.867

아니면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
놀라운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.

00:45:31.967 --> 00:45:34.540

어떤 사람이 태생부터
걸지를 못해요.

00:45:34.640 --> 00:45:38.517

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걷기
시작해, 20년 만에.

00:45:38.617 --> 00:45:39.695

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?

00:45:39.795 --> 00:45:43.214

그래서 걷는다는 거 자체가
이상하다, 이럴 수 있어요.

00:45:43.314 --> 00:45:44.175

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.

00:45:44.275 --> 00:45:45.653

걷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.

00:45:45.753 --> 00:45:49.491

그런데 만약에 걷는 것이
이상하다는 게 어기적어기적했다.

00:45:49.591 --> 00:45:52.912

그러면 그때는 그의
걸음걸이가 이상하다.

00:45:53.012 --> 00:45:55.441

이렇게 구체화해주는 방법이 있죠.

00:45:55.541 --> 00:46:00.185

상황에 의한 중의문에서
형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.

00:46:00.285 --> 00:46:02.431

이게 왜 중의냐, 잘 보세요.

00:46:02.531 --> 00:46:07.417

신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완료인지
진행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.

00:46:07.517 --> 00:46:15.996

무슨 이야기냐,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
신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도 신고 있다.

00:46:16.096 --> 00:46:16.772

이렇게 쓸 수 있죠.

00:46:16.872 --> 00:46:21.803

그런데 엄마가 야, 네 형
슬리퍼 신고 나갔니?

00:46:21.903 --> 00:46:24.651

했는데 창문으로 보고 아니요,
형 운동화 신고 있어요.

00:46:24.751 --> 00:46:25.958

이럴 수 있어요.

00:46:26.058 --> 00:46:28.841

그러면 형이 바깥에서 운동을
신는 동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.

00:46:28.941 --> 00:46:30.297

신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.

00:46:30.397 --> 00:46:34.290

그러니까 형이 운동을
신는 중이다, 해서

00:46:34.390 --> 00:46:38.193

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
걸 알려주든지

00:46:38.293 --> 00:46:42.268

아니면 형이 운동을 신은
상태이다, 라고 해서

00:46:42.368 --> 00:46:45.999

상태성, 완료성을 알려주든지
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.

00:46:46.099 --> 00:46:47.268

그래서 일부 예들.

00:46:47.368 --> 00:46:49.584

지금 중의문을 형성해주는 것 중에서

00:46:49.684 --> 00:46:51.879

풀어주는 방법들을 좀
설명드렸습니다.

00:46:51.979 --> 00:46:54.687

애네들은 어휘는 아니지만,

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

00:46:54.787 --> 00:46:58.088

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
다뤄봤다는 점 설명드립니다.

00:46:58.188 --> 00:47:01.561

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문
규정 부분들을 들어갈 거예요.

00:47:01.661 --> 00:47:05.541

그런데 어문 규정은
외워야 될 요소는 적고

00:47:05.641 --> 00:47:07.498

이해를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.

00:47:07.598 --> 00:47:10.203

그러니까 외우면 좋긴 하지만
그건 사실 비효율적이야.

00:47:10.303 --> 00:47:14.662

그래서 보기에 주어지기 때문에
그 보기에 주어지는 내용을

00:47:14.762 --> 00:47:18.411

수업을 통해 친숙하게 만들어놓고

00:47:18.511 --> 00:47:22.854

답으로 빨리 적용하는
방법을 위해서 공부한다.

00:47:22.954 --> 00:47:24.031

이렇게 생각하시면
되게 좋을 거예요.

00:47:24.131 --> 00:47:25.014

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돼요.

00:47:25.114 --> 00:47:29.633

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
시간에 한글 맞춤법 양이 좀 길어요.

00:47:29.733 --> 00:47:33.609

그다음에 표준어 부분에서 표준어는
별로 의미가 없고 표준 발음법 위주.

00:47:33.709 --> 00:47:36.018

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려
있으니까 마지막 시간에는

00:47:36.118 --> 00:47:41.703

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 부분을
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47:41.803 --> 00:47:42.993

수고하셨습니다.